

# 추자도(楸子島)의 지리적 환경 연구

정 광 중(제주대 교육대학)

## 1. 머리말

추자도는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도서지역이다. 그 이유는 먼저 섬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1시간 이상 파도에 몸을 맡겨야 하고, 더욱이 꼭 가야할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정확한 날짜를 정하고 여정에 따라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왕복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물리적인 거리만을 생각한다면, 그리 멀지만도 않은 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주도 본섬에 거주하는 사람이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건 추자도를 방문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마치 1년 중 계획을 미리 세우듯이, 추자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번거로운 일을 계획한대로 마쳐놓고 훌가분한 마음으로 여행 삼아 떠나고자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여행지로 목적삼아 추자도를 방문하든, 취미생활인 낚시를 즐기러 추자도를 방문하든, 추자도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자도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의 실상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다. 그 배경에는 '추자도는 잠깐 머물다 오는 작은 섬'으로만 인식하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쩌면, 추자도를 알리는 안성맞춤의 안내서나 교양도서가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추자도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추자도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새로운 모습의 현실적인 세계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어느 한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 등 여러 부문별 조각의 편린들에 대해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추자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추자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지역 지리적(地域 地理的) 관점의 요소별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추자도의 지리적 환경 이해를 도모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지역 지리적 관점의 요소는 필자가 임의대로 추자도의 지리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취사선택하였음을 밝힌다.

## 2. 자연환경의 이해

### 2-1. 위치와 영역

추자도는 한반도 남해안의 진도 및 노화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위치하는 해중도(海中



<그림 1> 추자도의 지리적 위치와 마을의 위치  
(자료 : 1 : 25,000 지형도[1999년 편집, 2004년 수정])

島)이다(그림 1). 해중도는 말 그대로 바다 한 가운데에 떠 있는 섬을 말한다. 그러기에 추자도는 주변에 위치하는 제주도 본섬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여러 지역과도 지리적인 결절성으로 인해 생활교류나 사회생활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섬지역의 특성을 안고 있다.

추자도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하며, 수리적 위치로는 북위 33°55'32"~33°55'36", 동경 126°22'25"~126°23'05" 범위에 자리 잡고 있다. 추자도와 같은 위도상의 인접도시를 보면 일본의 기타큐슈시(北九州市)가 있으며, 또한 같은 경도 상의 인접 도시로는 북한의 만포시(자강도)를 비롯하여 중국의 지린시(吉林市)와 하얼빈시(哈爾濱市) 등이 있다. 그리고 추자도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지역으로는 남해안의 보길도로 직선거리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다.

추자도를 중심에 놓고 보면, 북쪽의 진도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46km, 목포까지는 88km, 북동방향의 해남반도까지는 약 44km, 완도까지는 55km, 그리고 남쪽의 제주시(제주항)까지는 50km, 애월까지는 53km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동서의 망망대해를 건너 동쪽의 쓰시마(對馬島)까지는 약 265km, 서쪽의 중국대륙(난통시[南通市] 부근의 해안)까지는 약 480k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sup>1)</sup>. 이처럼, 생활교류나 정보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추자도는 반도부의 내륙과 직접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해남반도와의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상황이며, 제주도 본섬까지는 하추자의 신양항과 제주항을 기·중점으로 하는 직선거리가

1) Daum의 지도상에서 측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임.

가장 가까운 지리적 거리를 보인다. 그렇다고는 하나 직선으로 나타나는 지리적 거리가 추자도민들의 생활상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거리로 해석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리가 뒤따른다. 다시 말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통편(交通便)과 교통로(交通路)의 발달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자도는 주민들의 거주 중심지인 상추자도(上楸子島)와 하추자도(下楸子島)를 중심으로 횡간도(橫干島)와 추포도(楸浦島) 그리고 주변수역에 위치하는 38개(무인도)의 부속 섬으로 구성되며<sup>2)</sup>, 이들을 모두 합한 총면적은 약 7.2km<sup>2</sup>로 나타난다. 이 면적은 제주도를 구성하는 7읍 5면의 행정구역 중 우도면(6.2km<sup>2</sup>) 다음으로 작은 면적으로 확인된다. 추자군도(楸子群島)를 구성하는 여러 섬들 중에서 4개 유인도의 면적은 상추자도가 1.25km<sup>2</sup>, 하추자도가 4.18km<sup>2</sup>, 횡간도 0.61km<sup>2</sup>, 추포도가 0.13km<sup>2</sup>로 총 6.17km<sup>2</sup>이며, 이들 중에서는 하추자도가 가장 면적이 큰 섬으로 확인된다<sup>3)</sup>.

추자도의 38개 무인도를 제외한 상·하추자도만을 기준으로 4극 지점을 보면, 동단(東端)은 하추자도 예초리(禮草里)의 해안 바위가 전개되는 지점으로 배후에는 추석산(앞산, 155.7m)의 산줄기가 이어지며 주로 삼림으로 뒤덮여 있다. 서단(西端)은 상추자도 대서리(大西里)의 산 85번지(임야)가 자리 잡은 곳으로 역시 해안 바위가 위치하는 지점이다. 물론 해안 바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단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부근에 특별한 인공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단은 하추자도 신양리(新陽里)의 해안가로 암반이 전개되는 지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산 120번지의 임야가 자리 잡고 있다. 남단 바로 앞에는 ‘반여’라는 작은 암초가 자리 잡고 있으며, 배후의 지구는 주로 삼림으로 뒤덮인 가운데 일부 삼림지를 활용하여 추자면 위생(분뇨)처리장이 건설되어 있다. 북단(北端)은 상추자도 대서리 북쪽 해안가의 넓은 암반이 전개되는 지점으로, 배후에는 마찬가지로 삼림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대서리의 마을 중심부에서 이어지는 작은 마을길이 해안 부근까지 이어져 있으며 일부가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추자도(상·하추자도)의 4극 지점은 도서지방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며, 그 배후로는 주로 소나무 수종의 삼림이 전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2-2. 마을별 위치와 지목별 면적

추자도에는 6개의 법정리(法定里)가 있다. 먼저 상추자도는 대서리와 영흥리, 하추자도는 묵리, 예초리, 신양1리 및 신양2리로 구성된다. 대서리는 상추자도의 북쪽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이어서 영흥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두 마을의 주요 거주지는 추자항을 중심으로 일부지구에만 알파벳 ‘C’자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일부 생활관련 시설(수원지, 소방서출장소, 등대, 양식장 등)과 군사시설을 제외하면 주로 삼림으로 뒤덮여 있다. 따라서

2) 38개의 무인도는 두렁서, 개인여, 이도, 미역서, 남덕서, 검등여, 시루여(이상 7개 영흥리 소속), 사수도, 우두도, 염도, 가망여, 상도, 돌도 1, 돌도 2, 우비도, 방서, 오등서, 혈도, 등대서(이상 12개 예초리 소속), 직구도, 흙검도, 수령도, 다무내미, 망도, 악생도, 공여도, 녹서, 문여, 흑서(이상 10개 대서리 소속), 망서, 수덕, 청도, 절명서, 외간도, 섬도(이상 6개 신양리 소속), 해암도, 회도, 수영도(이상 3개 묵리 소속)이다(제주시, 2009, 『제49회 통계연보』, 제주시, 59쪽).

3) <http://www.jeju.go.kr>

대부분의 거주지는 해발 20m 미만 지구에 터 잡고 있다. 이들 두 마을의 자연마을은 대서리가 2개 마을(본동·횡간도), 영흥리가 1개 마을(사동=절기미)로 구성된다.

하추자도의 서쪽 해안가에는 목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약 900여m의 거리를 두고 신양1리가, 동남쪽으로는 약 650여m의 거리를 두고 신양2리가 위치하고 있다. 목리도 해안 저지대에 자리 잡은 관계로 마을의 주요 거주지는 해발 20m 미만 지구에 해당되고, 자연마을은 본동 1개로 구성된다. 예초리는 하추자도의 북동쪽 해안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신양1리와는 도로거리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예초리는 추자도 내에서도 가장 격리된 지구에 터 잡은 마을의 이미지가 강하다. 더불어 예초리는 추석산의 산사면이 해안지구에 이르러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주요 거주지도 해발 20m 미만 지구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연마을은 본동과 추포리 2개로 구성된다.

신양1리는 하추자도 동쪽 해안지구에 위치하며 신양항을 전방에 두고 있다. 신양2리와는 도로거리로 약 600여m를 두고 있으며, 자연마을은 신상리와 신하리 2개이다. 주요 거주지는 대부분이 해발 20m 미만 지구에 자리 잡고 있지만, 동쪽의 거주지는 해발 40m 가까운 지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신양2리는 하추자도의 남쪽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마을은 장작리 1개로 구성된다. 주요 거주지는 해발 10~20m 사이 지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서쪽으로는 목리, 동쪽으로는 신양1리와 마주보고 있다<sup>4)</sup>.

이상과 같이 추자도는 6개의 법정리와 이들 마을을 구성하는 9개의 자연마을 그리고 각 자연마을을 세분한 44개의 하위 행정조직인 반(班)을 거느리고 있다. 아울러 6개 법정리는 주로 1114번 지방도와 마을 내부로 이어지는 작은 마을길로 연결되어 있다.

<표 1>은 추자면의 토지 지목별 면적을 나타낸 자료로서, 추자면의 토지이용 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추자도의 토지이용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한 가지는 추자도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섬 자체가 지니는 특성, 즉 추자도가 침강(沈降: 육지부가 내려앉아 해수면의 침입을 받음)이나 융기(隆起: 해저부가 해수면 위로 솟아올라 주변부가 해수에 침수됨)로 인해 섬 주변부가 침수(浸水)되어 형성된 도서지방이라는 특성 때문에 삼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과 좁은 면적에 100m급 이상의 경사도(傾斜度)가 높은 산들이 많이 차지하는 이유로 인해 농업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농경지 면적이 아주 작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추자도 주민들은 농업적 생산은 대부분이 자가 소비용 채소류 정도에 그치고, 주로 연승어업(延繩漁業)을 비롯한 자망(刺網) 및 유자망(流刺網) 어업, 들망(걸그물)어업, 통발(문어단지)어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추자도가 한반도나 제주도 본토와는 비교적 멀리 떨어진 이도(離島)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자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장용지 및 창고용지를 비롯한 학교용지, 도로, 주차장, 공원, 사적지 등의 면적이 작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추자도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나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공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이러한 사실은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추자도에서 가장 지목별 면적이 넓은 것은 삼림이라 할 수 있는 임야가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경작지인 밭이 21.8%로 차순위를 점하고 있다. 추자도 주민들이 거주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지는 전

4) 1 : 25,000 지형도 및 제주시, 2010, 『제주시 새주소 생활안내지도(도로명 새주소 안내)』, 334~343쪽 독도(讀圖)에 의함.

5) 정광중·강만익, 2003, '추자도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 제주교대논문집, 제32집, 63-79쪽.

체의 3.9%이고, 이어서 도로 3.1%, 묘지 1.3%, 잡종지 1.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추자도 주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편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주차장, 주유소, 공원, 사적지는 통계수치로 볼 때 0%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 과수원이나 목장용지가 0%라는 사실도 궁극적으로 도서지방이 안고 있는 한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추자면의 토지 지목별 면적 현황(2008년)

(단위 : m<sup>2</sup>)

밭	논	과수원	목장용지	임 야	대 지	공장용지
1,560,792.0	40,425.0	0.0	0.0	4,738,929.0	280,239.0	2,685.0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도 로	하 천	제 방
30,670.0	0.0	0.0	4,154.0	223,532.0	0.0	17,409.0
구거(배수로)	유지(습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 원	체육용지	유원지
29,671.0	9,332.0	8,975.0	30,015.0	0.0	0.0	0.0
종교용지	사적지	묘 지	잡종지	합 계	—	—
2,354.0	0.0	89,838.0	86,402.0	7,155,422.0	—	—

(자료 : <http://www.jejusi.go.kr/>)

### 2-3. 지형·지질 환경

추자도의 현재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성원인과 시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자도의 형성원인과 시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볼 때 일단 두 가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남해안의 거의 모든 도서와 함께 제4빙기(氷期)의 뷔름(Würm) 빙기 이후(후빙기, 즉 1만 년 전 이후)에 빙하성 해면상승(海面上昇)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고<sup>6)</sup>, 다른 하나는 백악기말 즉 약 6000만 년 전에 추자도 일대에 퇴적물이 침적과 화성암(火成岩)의 관입(貫入)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침강이 진행됨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sup>7)</sup>.

물론 전자의 주장에서는 추자도 자체의 지질적 형성연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섬 자체가 1차적으로 형성된 이후 해수면 상승에 의해 섬으로서 고립화(島嶼化)된 시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같은 논문에서 추자도가 제3기말~제4기초에 걸쳐 형성된 제주도는 물론이고 백악기보다 더 오래된 지질연령을 갖는다는 지적을 통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추자도 자체의 형성시기가 후자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원종관·이문원, 1986, '추자군도의 지질', 『자연실태종합조사보고』, 제5집(추자군도), 58-59쪽.

7) 유환수·유경아, 1997, '추자도 부근의 지질 환경', 『한국도서연구』, 제8집, 21쪽.

궁극적으로 추자도의 도서화 된 시기와 섬 자체의 형성시기로 주장하는 논점이 서로 다른 만큼, 현시점에서는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한쪽의 주장에 따르기 보다는 위의 두 가지 주장을 종합적으로 유추하여 추자도가 형성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추자도가 화산도(火山島)인 제주도처럼 약 120만 년 전(신생대 제3기말~제4기초)이라는 아주 짧은 형성시기가 아니라 6000만 년 전의 백악기말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sup>8)</sup>.

앞의 두 주장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추자도가 빙하성 해면상승에 의해 섬이 형성되었거나 혹은 퇴적물이 침적과 화성암의 관입이 이루어지고 침강이 진행됨에 따라 섬이 되었건 간에, 추자도는 특정 지질시대에 바닷물의 침수(浸水)에 의해 도서화(島嶼化) 되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해수로 고립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도부의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수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고 주변지역과 차단되기 이전에는 동물계나 식물계 등 자연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남해안과 거의 유사한 자연 생태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추자도가 완전한 섬으로 남해안의 여러 도서지역과 격리된 이후에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시·공간적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자도의 지형적 특성을 정리해 보자. 추자도의 지형은 지구 역사를 따지는 지질연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비교적 젊거나 왕성한 편에 속한다. 앞에서 정리한 추자도의 형성시기 즉 6000만 년 전의 중생대 백악기는 지질연대 상으로 그다지 오래된 시기가 아니다. 따라서 추자도의 지형은 인간에 비유하면 장년기(壯年期)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특정지역의 지형을 장년기라고 하는 배경은 말 그대로 지형이 형성된 이후 유년기를 지나 성숙한 어른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자도는 섬 주변부와 내부에서 인간의 장년기에 해당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추자도의 내부를 살펴보자. 추자도에는 높고 낮은 봉우리(頂上部)를 지닌 20개 이상의 산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해 있다. 상추자도에는 큰산(142m, 대서리·영흥리)을 비롯하여 뒷산(142m, 영흥리), 독산(129.7m, 대서리), 탕지밭산(128.9m, 영흥리), 봉골레산(85.5m, 대서리), 영개산(82.6m, 영흥리), 대장산(72.5m, 대서리), 메지박산(70.3m, 대서리), 컷개산(36.8m, 대서리), 등대산(21.3m, 대서리)이 있고, 하추자도에는 돈대산(163.9m, 신양리)을 비롯하여 큰산(추석산, 155.7m, 예초리·신양리), 대왕산(124.9m, 신양리), 엄개독산(119m, 예초리·신양리), 석주머리(석두청산, 111.7m, 신양리), 영계산(101.8m, 묵리), 줄복산(97.2m, 신양리), 뒷산(95.6m, 묵리), 앞산(87.7m, 신양리), 앞산(73.1m, 묵리), 신대산(67.2m, 예초리), 은달산(60.3m, 묵리) 등이 있다<sup>9)</sup>. 이들 중 상추자도의 최고봉은 대서리와 영흥리에 걸쳐있는 큰산이고, 하추자도의 최고봉은 신양리에 위치하는 돈대산이다. 이들 산지는 단독적으로 위치한다기보다는 연속적인 형태를 보이며 추자도의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개 이상의 봉우리들로 연결된 산지사면(山地斜面)은 추자도 해안가로 바로 이어진다. 해안가에서는 섬 외부에서 바라보는 지형적 특징이나 도서 경관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년기에 이른 산지사면은 해안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보통은 급한 단사면(短斜面)이며 직선적인 특징을 보인다. 동시에 파도의 침식을 받은 후에 형성되는 해식애(sea cliff)가 곳곳에 발달해 있고 절리(節理)에 의한 동굴과 구멍바위(sea arch) 등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8) 최근에 발행된 일부 도서에서는 추자도의 많은 산들이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오름(기생화산)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큰 잘못이다.

9) 강성현, 2010, 『자연경관의 조화와 제주·제주오름』 (중보수정판), 도서출판 열림문화, 482~492쪽.



<그림 2> 상추자도 큰산(142m)      <그림 3> 하추자도 돈대산(163.9m)과 정상부  
(자료 : 포털사이트 'Daum'의 항공사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풍화의 진전에 따른 시스택(sea stack, 고립된 바위섬)도 몇몇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신양리(진작지)나 예초리 등 일부 마을 해안에서는 자갈성 암석해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하추자도 신양2리의 모진이해수욕장, 진작지(추자10경 중 장작평사)나 예초리의 '몽돌밭(신대)', 그리고 대서리의 옛 이름인 '큰작지'나 '작은작지' 등으로 불리는 지명들은 모두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해안의 특성을 반영한 것들이다<sup>11)</sup>. 암석해안을 형성하는 자갈은 추자도에 하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안가의 암석풍화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혹은 바다 속에서 파쇄 되어 해안가로 이동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하추자도의 일부지구에는 만(灣)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여럿 있는데, 이들은 마을단위의 포구나 항구로 활용함과 동시에, 같은 지구 내에 자갈이나 모래가 퇴적된 곳은 해수욕이나 어망·어구 등의 수선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형은 일단 형성된 이후 다양한 외부적 상황과 조건에 의해 풍화와 침식을 받게 되는데, 추자도의 해안지형의 풍화와 침식과정은 남해안의 도서 해안지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나아가 추자군도를 구성하는 상·하추자도를 비롯하여 횡간도와 추포도 등 4개의 유인도 주변에는 크고 작은 여(岬)가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어류들의 산란장소로 활용되거나 해초류의 서식환경이 되고 있다. 아울러 주변의 많은 무인도들도 정상부에만 식생을 간직한 채 사면은 주상절리가 발달한 형태를 유지하며 해안으로 가파르게 이어진다<sup>12)</sup>. 그리고 이들 상·하추자도 주변의 많은 무인도나 크고 작은 여들은 계절에 따라 이 지역을 가로지르

10) 원종관·이문원, 1986, 앞 논문, 59쪽.

11) 이 외에도 추자도 주민들 사이에서 '작지' 즉 자갈밭이라 불리는 마을 내 작은 지구의 지명은 후포작지(후포해안의 자갈밭), 대추작지(영흥리 해안의 자갈밭), 꿀력개작지(영흥리 지선 해안의 자갈밭), 웃진두작지(상추자도 진두 해안의 자갈밭), 아래진두작지(하추자도 진두 해안의 자갈밭), 생금이작지(하추자도 목리 속칭 '생금이' 해안의 자갈밭), 작은목이작지(목리와 신양2리 경계지구 해안의 자갈밭), 신땡이작지(추자 10경 중 '신대어류'의 자갈밭), 모진이작지(신양리의 뒤쪽 해안의 자갈밭), 작은예초작지(예초리 해안의 자갈밭), 진작지(신양2리 해안의 자갈밭), 앞작지(대서리와 영흥리의 앞쪽 해안의 자갈밭), 고래죽은작지(예초리 동쪽 해안의 자갈밭), 석주머리작지(추자10경 중 하나인 석두청산(石頭靑山)의 자갈밭), 나루목작지(나루목 해안의 자갈밭), 오지박작지(목리해안의 자갈밭), 은달짜큰작지(목리 해안의 자갈밭), 얼기미작지(신양리 해안의 자갈밭) 등 18개나 된다 (<http://www.jeju.go.kr>).

12) 강순석, 2006, '추자도의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2006 추자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9쪽.



는 철새나 텃새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추자섬 외부에서 본 지형적 특징이자 도서경관의 특징이라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추자도의 지질적 특성을 살펴보자. 추자도의 지질을 특징짓는 주요 암석은 크게 퇴적암류(堆積岩類)와 화성암류(火成岩類)로 구별할 수 있는데, 퇴적암류에서는 사암(응회암질)과 셰일(shale)이 많이 차지하며, 화성암류에서는 안산암, 석영반암, 유문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3)</sup>. 또한 여기에 신생대 제4기 현생 퇴적물로서 자갈, 모래, 펄 등도 존재한다.

이들 추자도를 구성하는 주요 암석의 층서(層序) 구조와 형성연대는 셰일과 사암이 가장 하부에 있고, 그 위를 안산암, 석영반암, 유문암 순으로 형성된 구조를 보이며 또 유문암의 상부는 자갈, 모래 펄 등이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며 퇴적되어 있다. 추자도의 해안암반을 넓게 채색하는 암석의 색상은 회색과 회백색(유문암·석영반암), 또는 암회색(사암·안산암)이나 흑색(셰일)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추자도를 구성하는 암석의 색상 톤(tone)과 바로 연결된다.

## 2-4. 기후환경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관측망(氣象觀測網)은 제주지방기상청을 비롯하여 서귀포기상대, 고산기상대 및 성산기상대 등 4개의 유인기상관측소가 있으며, AWS(자동기상관측)지점은 19개소가 있다. 특히 자동기상관측은 제주도 내에서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나 벽지, 산악지대 등에서 발생하는 악기상(惡氣象)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추자도의 자동기상관측은 1990년 우도 및 마라도(항로표지관리소)와 같이 설치됨으로써 기온, 강수량, 풍속, 풍향 등을 분(分)단위로 관측하고 있다<sup>14)</sup>. 따라서 여기서는 추자도의 기온, 강수량 및 풍속 등 3가지 주요 기후요소만을 토대로 추자도의 기후환경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연평균기온(2008년)을 살펴보면, 추자도는 15.0℃로 제주(15.5℃)나 고산(15.5℃), 성산(15.5℃) 및 서귀포(15.2℃)보다도 0.2℃~0.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추자도의 연평균기온은 23개 유인기상관측소 및 자동기상관측 지점에서 측정된 값과 비교해 볼 때 선홍(14.0℃), 하원(14.5℃), 유수암(13.4℃), 오등(12.4℃) 등과 같은 중산간 마을이나 산남(山南) 지역의 여러 마을, 또는 어리목(9.6℃), 진달래밭(8.0℃), 윗세오름(6.4℃), 성판악(10.8℃) 등과 같은 중산간~산간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우도(15.6℃)와 마라도(16.0℃) 같은 동일한 도서지역보다도 낮게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이다<sup>15)</sup>.

추자도의 연평균강수량(2008년)은 1048.4mm로 유인기상관측인 제주(14,56.9mm)나 서귀포(1850.8mm), 성산(1840.9mm) 및 고산(1094.7mm)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추자도의 강수량은 제주도 본토에서도 가장 강수량이 낮게 확인되는 고산보다도 적어, 매년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의 부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절별 누적강수량과 비율을 보면 봄이 217.0mm(20.8%), 여름이 568.3mm(54.2%), 가을이 175.5mm(16.7%), 겨울이 86.7mm

13) 유환수·유경아, 1997, 앞 논문, 19-20쪽.

14) 제주도기상청, 2008, '제주도의 기상과 기후변화'(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자과정 강의자료), 6쪽.

15) 제주도기상청, 2008, 앞 논문, 36쪽.



(8.3%)로 나타나는데<sup>16)</sup>, 결국 여름철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봄과 가을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봄농사나 가을농사(수확기)에 대비한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sup>17)</sup>. 이와 같은 추자도의 강수량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도 추자도는 도서지방이라는 특성으로 평소 물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는데 항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추자도의 연평균풍속은 4.3㎧로 제주(3.8㎧), 성산(3.1㎧) 및 서귀포(3.1㎧)보다는 다소 높고 고산(6.9㎧)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sup>18)</sup>. 추자도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위치한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풍속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치라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같은 도서지방인 우도(5.4㎧)나 마라도(6.9㎧)에 비해서도 풍속이 낮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업활동에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에게는 고무적인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

16) 제주도기상청, 2008, 앞 논문, 46쪽

17) 2008년 계절별 강수량은 제주나 서귀포, 성산 및 고산보다도 편향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계절별 강수량 비율을 보면, 제주는 18(봄) : 47(여름) : 23(가을) : 12(겨울), 서귀포는 28 : 45 : 17 : 10, 성산은 23 : 44 : 21 : 12, 고산은 25 : 46 : 19 : 10으로 나타난다.

18) 제주도기상청, 2008, 앞 논문, 43쪽

### 3. 인문환경의 이해

#### 3-1. 행정구역의 변천과정<sup>19)</sup>

오늘날의 추자도가 어떤 행정제도의 틀 속에서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추자도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오랜 시기에 걸쳐 제주도와 전라도 사이를 오가며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그 배경은 추자도가 남해안에 위치하는 도서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서지역은 이주주민들의 역사와 관련하여 혹은 그 섬을 둘러싼 주변지역의 자원 활용문제 등으로 인접지역에서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권이나 혹은 자치권이 변하기 쉬운 지역속성을 지니고 있다.

보통 행정구역의 변화는 고문헌과 고지도,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국가 기록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으면 해당 시기마다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추자도의 경우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한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추자도의 소속은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따를 때 탐라현(耽羅縣)의 관할 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추자도가 제주목(濟州牧)의 관할 하에 놓여 있었거나 또는 전라도 우도(右道)의 관할 하에서 행정권이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 기록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시기에 따른 관할권이 분명하지 않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17C말부터 18C말까지 약 100년 동안의 추자도는 전라도 영암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8C말~19C말(특히 1880년 이전) 사이에는 전라도 영암군과 제주목 두 지역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어지는 1881~1893년(고종18~30) 사이에는 제주목으로 편입되어 소속이 분명하게 바뀌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다음해인 1894년(고종 31)에는 다시 전라도 해남현(海南縣)으로 편입되어 소속은 바뀌게 된다. 1894년 이후부터 1914년 2월까지의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행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상위 행정단위의 변화 즉, 부제(府制) 시행 및 도제(道制)의 부활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추자도가 완도군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당시 추자군도에는 대서리(大西里), 사동(寺洞), 묵리(默里), 예초리(禮草里), 신상리(新上里), 신하리(新下里), 장작지(長作只), 횡간도(橫干島) 등 8개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음이 확인된다<sup>20)</sup>.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면, 추자도에 소속된 마을은 현재의 마을(법정리 또는 자연마을)과 거의 같은 수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상황을 보인다.

1914년 3월부터는 행정단위(군면)의 폐합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군 추자면과 보길면 내 횡간도를 병합하여 전라남도 제주군(濟州郡)으로 재 편입되며(이 때 추자군도의 마을은 대서리, 영흥리, 묵리, 예초리, 신양리, 횡간도 등 6개임), 일제 강점기 이후 시기인 1946년 8월에

19) 추자도의 행정구역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오창명의 연구(오창명, 2006, 『추자도와 사수도의 역사적 고찰』(북제주군 총무과, 12-36쪽.) 및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I)』 [행정명사·제주시 편](제주대출판부, 396-398쪽.)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본고에서 미흡한 내용은 여기에 명시한 오창명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20)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I)』 (행정명사·제주시 편), 제주대출판부, 398쪽.

<표 2> 추자면 행정구역의 변천사

시기 또는 연도	관 련 사 항	출처 및 관련 내용
고려시대	- 탐라현(耽羅縣) 관할 하에 놓여 있었음	· 『高麗史』(卷57, 志11, 地理 2, 耽羅縣)
조선시대 초기	- 제주목(濟州牧) 관할 하에 있었거나 전라도 우도(右道) 관할 하에 있었음	·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 山川)
17C중반~18C말	- 전라도 영암군(靈岩郡)에 소속	· 『孝宗實錄』(卷15, 孝宗 6年 7月 丙午), 『備邊司謄錄』(英祖 4年 1月 27日), 『海東地圖』(靈巖郡地圖) 등
18C말~19C말(1880년 이전)	- 전라도 영암군 혹은 제주목에 소속(?)	· 『哲宗實錄』(卷5, 哲宗 4年 11月 戊辰), 『大東地志』(濟州牧 島嶼條)
1881~1893년(高宗 18~30)	- 제주목으로 편입, 소속	· 『高宗實錄』(卷18, 高宗 18年 8月 辛巳 /卷30, 高宗 30年 10月 丙子)
1894년(高宗 31)	- 전라도 해남현(海南縣)으로 편입	· 『高宗實錄』(卷31, 高宗 31年 2月 丁丑)
1895년(高宗 32)	- 부제(府制) 실시로 나주부(羅州府) 완도군(莞島郡)에 편입	· 나주부는 이때 신설된 부(府)임 · 이 당시 대서리, 사동(寺洞), 목리, 예초리, 신상리(新上里), 신하리(新下里), 장작지(長作只), 횡간도(橫干島) 등 8개 마을이 있었음
1896년(건양 원년)	- 도제(道制) 부활로 전라남도 완도군에 편입	· 부제 실시 및 도제 부활 등으로 행정체제가 바뀌지만, 추자도는 여전히 완도군 소속임
1914년 3월	-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군 추자면과 완도군 보길면 내의 횡간도(橫干島)를 병합 전라남도 제주군(濟州郡)으로 편입	· 이 당시 대서리, 영흥리, 목리, 예초리, 신양리, 횡간도 등 6개 마을이 있었음
1915년 5월	- 도제(島制) 실시에 따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추자면(楸子面)이 됨	
1946년 8월	- 제주도가 전라남도와 분리됨과 동시에 도제(島制)에서 도제(道制) 및 군제(郡制)가 실시되어 제주도(濟州道) 북제주군 추자면이 됨.	
1988년 1월	- 신양리를 신양1리와 신양2리로 분리됨	· 신양1리 : 신상리+신하리 · 신양2리 : 장작지+석두리(석지머리)
2006년 7월	- 제주특별자치도제 실시로 제주시에 편입되어 제주시 추자면이 됨	

(자료 : 오창명, 2006, 『추자도와 사수도의 역사적 고찰』(북제주군 총무과, 12-36쪽) 및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I)』[행정명사·제주시 편](제주대출판부, 396-398쪽) 등을 참고하여 재편집)

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와 분리됨과 동시에 도제(道制) 및 군제(郡制)가 시행되면서 오늘날의 행정구역과 똑같은 제주도(濟州道) 북제주군 추자면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1988년 1월에

는 하추자도의 중심마을의 하나인 신양리가 신양1리(기존의 자연마을인 신상리와 신하리)와 신양2리(기존의 자연마을인 장작리와 석두리[석지머리])로 양분되어 추자군도의 법정리는 총 6개로 변화하며, 횡간도는 상추자도의 대서리의 한 자연마을로 속하게 된다. 나아가 2006년 7월부터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추자면은 북제주군에서 제주시로 편입됨으로써 우도면과 더불어 도서지역이면서도 시(市)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상과 같이, 추자도(추자면)는 해중도라는 도서지역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대의 흐름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전라도(영암군, 해남현 및 완도군)와 제주도(제주목, 제주군, 북제주군)로의 편입과 재편입이 거듭되는 국면을 맞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3-2. 인구변화의 특성

<표 3>은 1968~2009년까지의 추자면 인구수와 가구수 및 세대수, 성비, 연평균증가율 등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10년 간격을 주기로 추자면 인구변화의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6개(신양리가 분리되기 전에는 5개 마을) 마을별로 인구변화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표 3>의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추자도의 인구통계를 가능한 한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1968년 이전의 통계치는 일부 항목(남녀별 인구수, 세대수)이 결여된 관계로 여러 항목이 갖춰진 연도부터 통계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통계자료는 기본적으로 <표 3>에서 활용한 각 연도별 『북제주군 통계연보』(북제주군)와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발행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를 근간으로 작성하였다. <표 3>에 제시된 통계의 시작연도는 1868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추자도(추자면)의 인구통계는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가령 1925년에 3,756명, 1928년에 3,486명, 1944년에 4,538명, 1960년에 5,738명, 1966년에 6,233명 등이다. 이들 단편적인 인구통계는 시기별로 추자도의 인구변화를 설명하는데 비교치로 활용하고자 한다.

#### 3-2-1. 10년 주기의 인구변화

앞에 제시한 1968년 이전 추자도의 인구 통계치를 토대로 인구변화를 정리해보면, 추자도에는 일제강점기에 3,000여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방 이후 1960년대 중·후반까지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925년 인구통계를 근간으로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1928년에 -7.2%, 1944년에 30.2%, 1960년에 26.4%, 1966년에 8.5%로 나타난다. 이를 비교치로 설정해놓고 1968년 추자도의 인구수 6,771명과 비교해보면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1966년과 비교하면, 실수(實數)로는 538명이 증가한 셈이고, 증가율로는 8.6%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1960대 후반까지도 이어지면서 추자도의 인구증가가 최고조에 달하는 국면을 보인다. 이 배경에는 추자도가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과 더불어 제주 4.3사건이나 한국전쟁의 영향을 덜 받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성과 함께 과거로부터의 전통문화인 대가족제도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로 돌입하면서 추자도 인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것은 한국사회가 경제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은 이 시기까지도 영향이 덜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970년의 추자도 인구는 1960년대 후반

<표 3> 추자면 인구수·가구(세대)수·성비·연평균증가율의 연도별 변화(1970~2009년)  
(단위 : 명, 가구(세대), %)

연 도	남 자	여 자	합 계	가구수 세대수	성 비	가구(세대) 당 인원수	연평균 증가율
1968	3,393	3,378	6,771	1,085	100.4	6.2	-
1969	?	?	?	?	?	?	?
1970	3,381	3,280	6,661	1,129	103.1	5.9	-
1971	3,327	3,425	6,752	1,144	97.1	5.9	1.4
1972	3,382	3,333	6,715	1,131	101.5	5.9	-0.5▼
1973	3,344	3,259	6,613	1,129	102.6	5.9	-1.5▼
1974	3,243	3,143	6,386	1,145	103.2	5.8	-3.4▼
1975	3,324	3,146	6,470	1,170	105.7	5.5	1.3
1976	3,280	3,187	6,467	1,119	102.9	5.8	0.0
1977	3,296	3,280	6,576	1,175	100.5	5.6	1.7
1978	3,287	3,172	6,459	1,183	103.6	5.5	-1.8▼
1979	3,272	3,220	6,492	1,185	101.6	5.5	0.5
1980	3,251	3,060	6,311	1,178	106.2	5.4	-0.6▼
1981	3,153	3,032	6,185	1,157	104.0	5.3	-2.0▼
1982	3,002	2,980	5,982	1,169	100.7	5.1	-3.2▼
1983	2,911	2,779	5,690	1,172	104.7	4.9	-4.9▼
1984	2,840	2,710	5,550	1,181	104.8	4.7	-2.5▼
1985	2,796	2,640	5,436	1,173	105.9	4.6	-2.1▼
1986	2,674	2,624	5,298	1,140	101.9	4.6	-2.5▼
1987	2,647	2,614	5,261	1,125	101.3	4.7	-0.7▼
1988	2,667	2,558	5,225	1,118	104.3	4.7	-0.7▼
1989	2,672	2,536	5,208	1,113	105.4	4.7	-0.3▼
1990	2,524	2,376	4,900	1,116	106.2	4.4	-5.9▼
1991	1,965	1,916	3,883	1,037	102.6	3.7	-20.8▼
1992	1,833	1,837	3,670	1,013	99.8	3.6	-5.5▼
1993	1,769	1,795	3,564	1,007	98.6	3.5	-2.9▼
1994	1,708	1,738	3,446	1,009	98.3	3.4	-3.3▼
1995	1,654	1,681	3,335	1,007	98.4	3.3	-3.2▼
1996	1,642	1,642	3,284	1,054	100.0	3.1	-1.5▼
1997	1,691	1,613	3,304	1,106	104.8	3.0	0.6
1998	1,852	1,650	3,502	1,253	112.2	2.8	6.0
1999	1,861	1,598	3,459	1,355	116.5	2.6	-1.2▼
2000	1,769	1,516	3,285	1,277	116.7	2.6	-5.0▼
2001	1,719	1,495	3,214	1,305	115.0	2.5	-2.2▼
2002	1,827	1,555	3,382	1,400	117.5	2.4	5.2
2003	1,892	1,669	3,561	1,467	113.4	2.4	5.3
2004	1,733	1,475	3,208	1,415	117.5	2.3	-9.9▼
2005	1,566	1,324	2,890	1,288	118.3	2.2	-9.9▼
2006	1,665	1,358	3,023	1,331	122.6	2.3	4.6
2007	1,774	1,310	3,084	1,393	135.4	2.2	2.0
2008	1,748	1,260	3,008	1,348	138.7	2.2	-2.5▼
2009	1,646	1,186	2,832	1,266	138.8	2.2	-5.9▼

(주 : 1968~1991년까지는 가구수, 1992~2009년까지는 세대수임. ▼는 감소율)

(자료 : 북제주군, 1968~2005, 『각연도 북제주군 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2006~2009,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등에 의해 필자 작성)

보다는 110여명 정도가 감소했지만, 일제강점기(1925년, 1928년 1944년)나 1960년대 초의 인구에 비하면 6,000명 이상의 높은 인구를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점은 1970년대 중반인 1975년 시점의 인구와 1970년대가 끝나는 1979년 시점의 추자도 인구가 각각 6,470명과 6,492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은 보이고 있지만 1970년대는 추자도 인구가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을 보면, 대략 1.7(1977년)~3.4%(1974년) 사이를 오가는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그다지 큰 폭의 증감률은 나타나지 않는다.

1980년대 추자도 인구는 감소 일변도의 길을 걷는 상황이다. 1980년 6,311명이었던 인구는 1982년부터 5,982명으로 감소하면서, 드디어 6,000명 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1985년에는 5,436명, 1989년에는 5,208명으로 약 10년 사이에 1,103명(감소율은 -17.5%)이나 감소하는 상황을 맞았다.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6(1980년)~4.9%(1983년) 사이를 보이며, 10년간 감소율 평균은 -1.95%로 확인된다.

그러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전까지의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한다면, 감소율은 그나마 납득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선 이후는 한국경제가 도약기에 접어들면서 한국내의 많은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나 지방의 중소도시로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따라서 추자도의 경우도 결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그러기에 불편한 점 생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가정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남녀 젊은 층, 그리고 상급학교로 진학을 꿈꾸는 학령 인구층의 유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가구당 가족수도 5.4명(1980년)에서 4.7명으로 이전 시기보다도 많이 낮아지면서 인구증가는 한층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추자도의 인구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 추자도 인구가 5,000명 선은 물론 4,000명 선 이하로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1990년 인구는 4,900명으로, 1980년대를 지나면서 5,000명 선이 이미 무너졌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에는 4,000명 선도 무너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는 추자도의 인구감소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된 시기라 지적할 수 있다.

이점은 연평균증가율(-3.77%)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70~2009년까지 10년 주기의 기간 중 인구감소율은 가장 높게 나타난다. 1990년대 추자도의 인구는 최저 3,284(1996년)명에서 최고 4,900명(1990년) 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추자섬 밖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도시지역에서의 일자리 찾기 또는 더 좋은 생활환경을 찾아 떠난 것이다. 그런 반면에, 추자도 내에서는 어선어업에 종사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 되어 어업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sup>21)</sup>.

2000년대에도 전체적인 추자도의 인구는 1990년대에 지속되던 감소현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국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감소가 진행되다가 증가로 전환되는 해(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1990년대 후반(1997~1998년)에도 일시적이거나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 이후에 일시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더라도, 1990년대의 특정시점보다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더 의문을 갖게 한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선어업에 종사할 남성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일부 가정에서는 국제결

21) 정광중·강만익, 2003, 앞 논문, 80-81쪽.

혼으로 인한 외국인 며느리들의 유입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를 시작하는 해의 추자도 인구는 3,285명이지만 끝나는 시점인 2009년의 인구는 2,832명이다. 따라서 10년 동안의 인구감소는 450여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세대당 가족수도 2.6명에서 2.2명으로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추자도의 인구문제는 수산업을 주업으로 삼는 많은 어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역산업의 기반조차 뒤흔드는 단계에 까지 확산되며 뿌리내리는 상황을 맞았다. 같은 시기의 인구감소율은 평균 -1.83명을 기록하며 1980년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외국인(중국 및 인도네시아) 어업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추자도 어업노동력의 부분적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의미를 던져주지만, 주민과 외국의 유입노동자 또는 국적을 달리하는 유입노동자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표출되는 부정적 측면의 의미도 던져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추자도의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할 정도의 위기적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추자도의 기간산업인 어업 노동력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 세대나 가구단위로 보면 어업 후계자의 부족문제, 새로 유입되는 노동자와 선주(船主) 간 계약기간에 따른 급료문제와 주거문제, 일상생활에서 섬 주민들과의 갈등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추자도의 인구감소 문제는 대안 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2-2. 마을 단위의 인구변화

여기서는 앞에서 추자도의 10년 주기 인구변화의 특징과 결부시켜 동일한 10년을 주기로 4개 주기에 걸친 마을 단위의 인구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4>에서 보는 1979년 시점의 마을별 인구분포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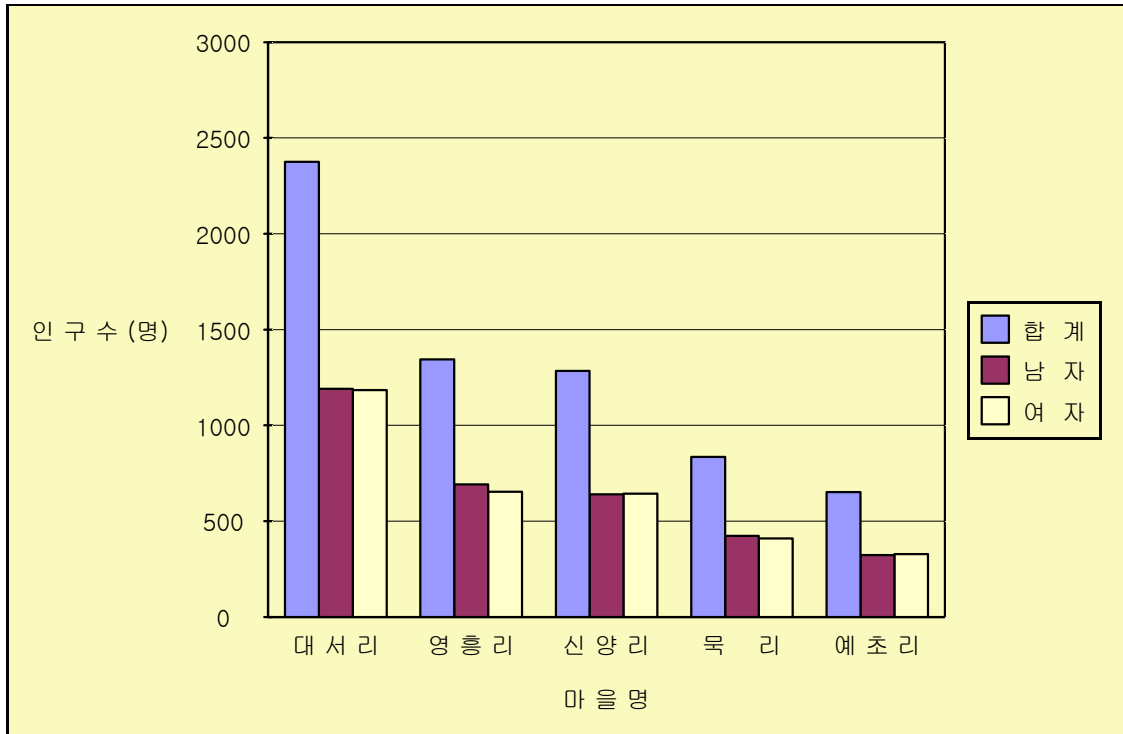
1979년 시점에서는 추자면 전체인구 6,492명 중 대서리가 2,376명(36.6%)이 분포하여 수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영흥리 1,345명(20.7%), 신양리 1,284명(19.8%), 묵리 835명(12.9%), 예초리 652명(10.6%) 순으로 마을별 순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28년 통계에서는 추자도의 전체인구 3,486명 중 신양리가 910명(26.1%)으로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서리는 835명(24.0%)으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sup>22)</sup>. 그리고 1968년 통계에서는 전체인구 6,771명 중 대서리가 2,280명(33.7%)으로 신양리를 제치고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1919년까지도 추자도의 행정기능을 담당하던 진소(鎭所)가 영흥리에서 대서리로 옮겨지고, 동시에 일본인들이 각종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현재의 추자항 주변으로 이주해 왔으며<sup>23)</sup>, 또한 1925년에는 추자초등학교의 개교, 1954년에는 추자면사무소의 설치(대서리) 등 당시 중요한 사회적 변화와 깊게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979년 시점의 추자도 전체인구는 상위 행정구역인 북제주군 전체인구(123,330명)의 약 5.3%를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아가 제주도 전체인구(456,988명)에서는 1.4%로, 7읍 5면 중에서는 우도면 다음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인다. 그러나 추자도라는 도서지역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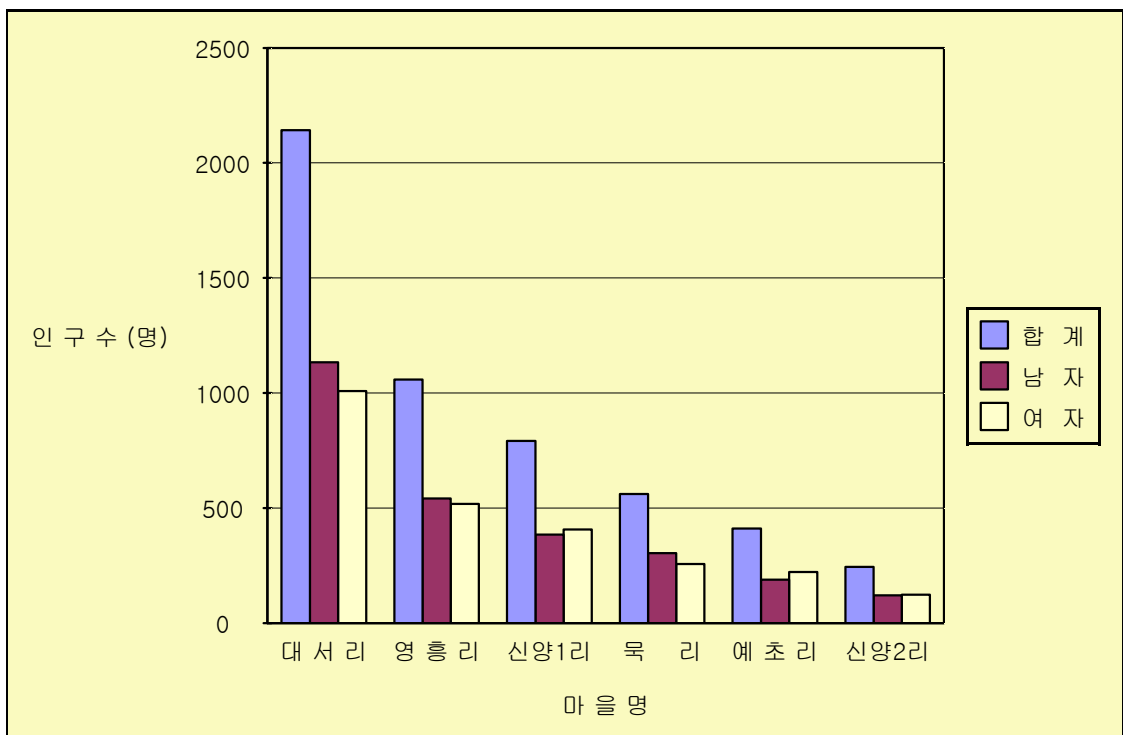
22) 善生永助, 1929, 『調査資料 第二十九輯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朝鮮總督府, 111쪽.(홍성목 역, 2002, 『調査資料 第29輯 濟州島生活狀態調査』, 제주시우당도서관, 93쪽.)

23)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1999, 『楸子島』, 48쪽, 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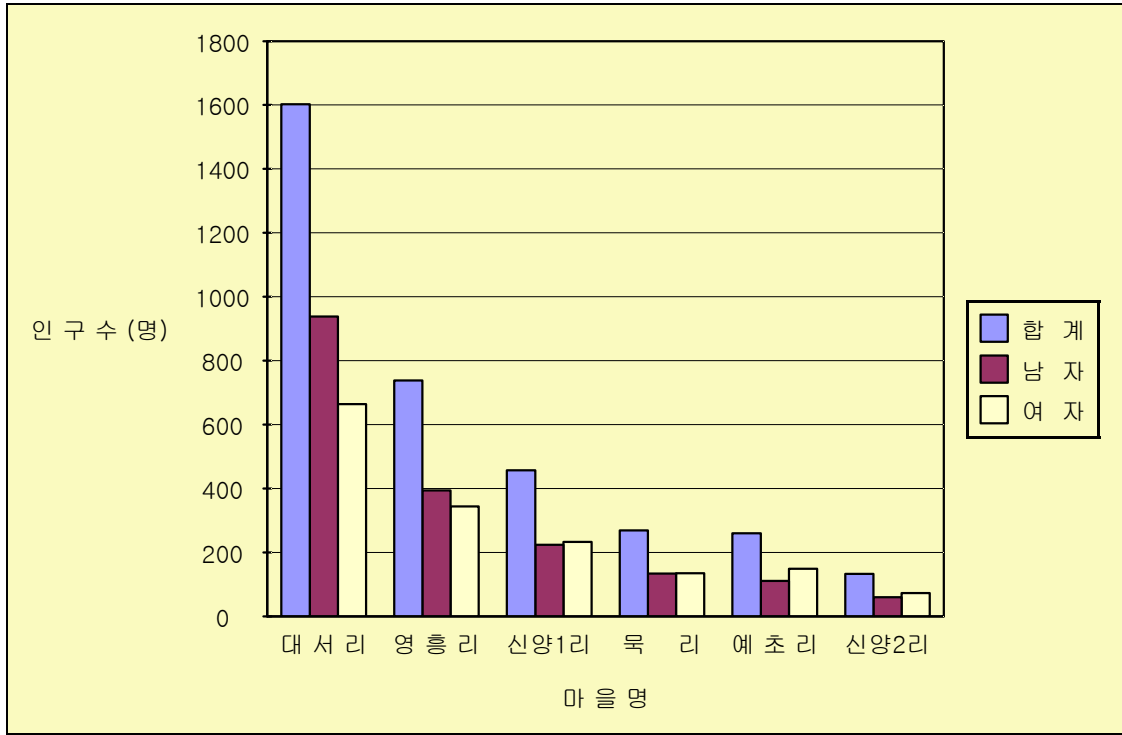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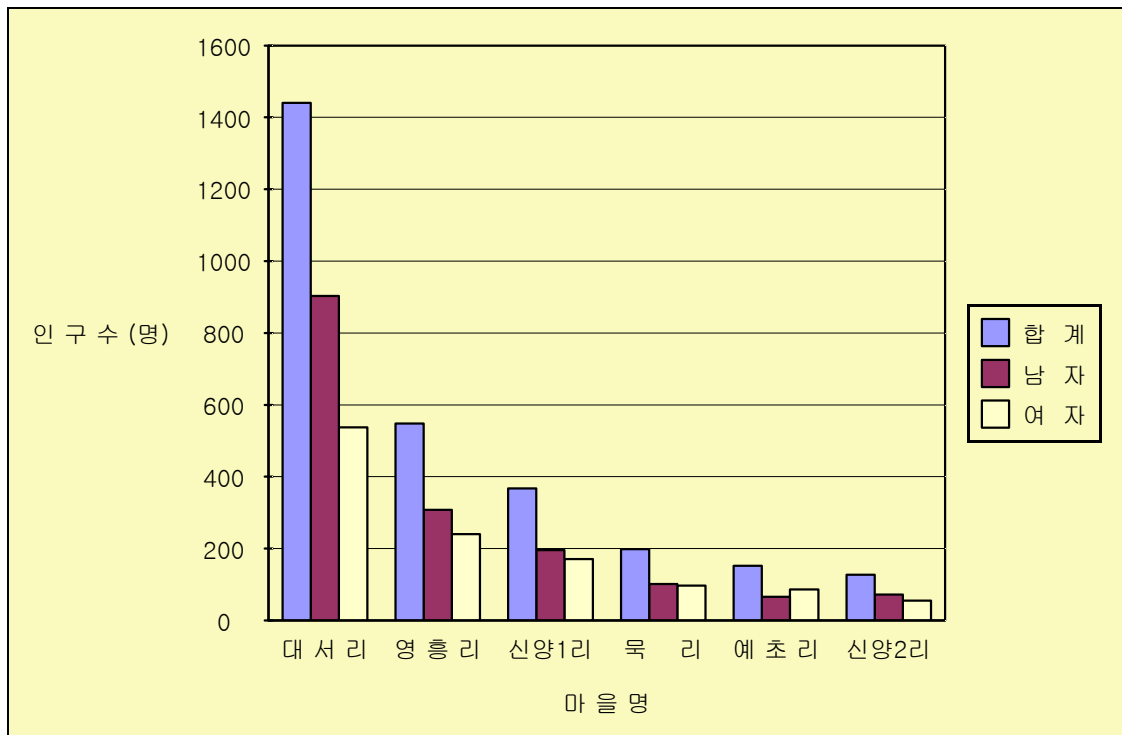
<그림 4> 1979년 시점에서 본 추자면 소속 마을별 인구분포  
 (자료 : 북제주군, 1980, 『제20회 통계연보』, 14쪽에 의해 필자 작성)



<그림 5> 1989년 시점에서 본 추자면 소속 마을별 인구분포  
 (자료 : 북제주군, 1990, 『제30회 통계연보』, 58쪽에 의해 필자 작성)



<그림 6> 1999년 시점에서 본 추자면 소속 마을별 인구분포  
 (자료 : 북제주군, 2000, 『제40회 통계연보』, 69쪽에 의해 필자 작성)



<그림 7> 2009년 시점에서 본 추자면 소속 마을별 인구분포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9, 『2009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25쪽에 의해 필자 작성)

리적 특성과 섬의 면적을 고려해 볼 때, 1979년 시점의 추자도 인구는 결코 낮은 수치라 할 수 없다.

<그림 5>에서는 1989년 시점의 마을별 인구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추자도 내에서는 대서리가 2,142명이 거주함으로써 6개 마을 중에서는 확고한 수위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신양리가 신양1리와 신양2리로 분화됨(1988년)으로써 인구통계도 양분되어 나타나지만, 마을별 인구 순위에서 위치 변동은 없다. 단지 신양리가 양분되는 가운데 신양2리가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마을로 등장할 뿐이다. 마을별 인구 순위는 대서리(41.2%)—영흥리(20.3%)—신양1리(15.2%)—목리(10.7%)—예초리(7.9%)—신양2리(4.7%) 순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추자도(대서리와 영흥리)와 하추자도의 인구비율을 비교해 보면, 상추자도가 61.5%, 하추자도가 38.5%로 상추자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자도 인구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상추자도에 최대 항만인 추자항이 입지해 있고<sup>24)</sup>, 더불어 추자면의 행정·문화·경제활동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면사무소를 비롯한 수협 및 우체국, 초등학교, 해군부대 등 주요 시설들이 대거 입지한 결과로써 과급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sup>25)</sup>.

이어서 마을별 성별인구의 차이를 보자. 6개 마을의 성비(性比)는 105.4로 나타나는데, 마을별로는 목리가 118.3, 대서리가 112.5, 영흥리가 104.4로 남성인구가 많으며, 나머지 마을은 예초리 85.1, 신양1리 94.3, 신양2리 96.8 순으로 여성인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목리, 대서리 및 영흥리가 남성인구가 높게 나타나는 배경은 각 마을의 특수한 상황(여성고령자의 다소)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업생산활동이 활발한 실태가 반영되어 남성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9년 시점의 마을별 인구는 상대적인 비교치에서 1989년에 비해 크게 감소가 진행된 가운데, 인구 순위에서는 여전히 대서리(1,602명)—영흥리(738명)—신양1리(457명)—목리(269명)—예초리(260명)—신양2리(133명) 순으로 이어진다(그림 6). 이중 상추자도의 대서리와 영흥리의 인구비율은 각각 46.3%와 21.3%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5.1%와 1.0%가 높아진 반면, 신양1리를 비롯한 목리, 예초리 및 신양2리의 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0.4%~2.9%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어업생산활동이 활발한 마을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업노동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유입이 확대된 반면, 그렇지 못한 마을의 경우는 유입인구도 적어 결과적으로는 거주인구도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을 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점은 마을의 성비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즉 어업생산활동이 활발한 대서리와 영흥리의 성비는 각각 141.3과 114.5로 남성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예초리(74.5)를 비롯 신양2리(82.2), 신양1리(96.1) 및 목리(99.3) 등 4개 마을은 성비에서도 여성인구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요약하면, 이 시기에는 섬 밖에서 추자도내로 유입되는 어업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남성이며, 주로 상추자도의 대서리와 영흥리로 많이 유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9년 시점의 추자도의 인구 순위도 1999년 시점과 동일하게 대서리(1,440명)—영흥리(548명)—신양1리(367명)—목리(198명)—예초리(152명)—신양2리(127명) 순으로 변동은 나타나

24)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2010년도 해양수산현황』에 따르면, 상추자도에 위치하는 추자항은 제주항을 시작으로 서귀포항, 한림항, 애월항, 성산포항, 화순항 등과 같이 제주도내 7대 항만(연안항, 제주시장이 관리)에 속하고, 하추자도에 있는 신양항은 김녕항 및 도두항과 같이 어항(국가항, 제주시장이 관리)에 속하여 2개의 항구는 격(格)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2010년도 해양수산현황』, 74쪽).

25) 정광중·강만익, 2003, 앞 논문, 48쪽.

지 않는다(그림 7). 그러나 마을별 인구감소율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점은 1979년 시점을 기준(100%)으로 4개 시점(1979년-1989년-1999년-2009년)의 마을별 인구감소율을 정리해보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서리의 인구감소율은 100%(1979년)-90.2%(1989년)-67.4%(1999년)-60.6%(2009년), 영흥리는 100%-78.8%-54.9%-40.7%, 묵리는 100%-67.2%-32.2%-23.7%, 신양리<sup>26)</sup>는 100%-80.6%-23.8%-17.6%, 예초리는 100%-63.0%-39.9%-23.3%로 파악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서리와 영흥리는 다른 3개 마을에 비해 인구감소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묵리, 신양리 및 예초리 등 3개 마을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어업생산활동의 현상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추자도 전체는 물론이고 마을별로도 인구감소에 따른 어업기반이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2009년 시점에서 볼 때 예초리를 제외하면, 대서리를 비롯한 5개 마을에서 남성인구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sup>27)</sup>. 이러한 사실은 1999년 시점과 비교해 볼 때, 묵리를 포함한 신양1리 및 신양2리에서도 어업 종사자인 남성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어업노동자들은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5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주로 중국인(주로 조선족 출신 남성)이 차지하다가 점차 인도네시아인 등이 그 자리를 넘겨받는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sup>28)</sup>. 이 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알력과 갈등문제가 조용한 도서어촌인 추자도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3-2-3. 5세 계급별 인구구성과 시기별 변화

<표 4>를 토대로 추자면 인구를 5세 계급별 구성 특징과 1980년, 1995년, 2009년도 등 세 시점의 시기별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80년 시점의 5세 계급별 인구를 살펴보면, 5~9세가 943명(15.0%)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10~14세가 908명(14.4%), 0~4세가 751명(11.9%)으로 상위의 5세 계급별 연령층으로 나타난다. 이들 3개 계급별 연령층의 인구는 2,062명 41.3%로, 향후 추자도의 인구구성에서 실질적 효과를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아주 밝은 전망을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5년이 경과한 1995년 시점에서 보면, 추자도의 인구구성에서 실질적인 도움은 42.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sup>29)</sup>. 즉 1980년 상위 3개 계

26) 신양리는 기준 시점인 1979년에는 2개의 마을로 구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1989년 이후 세 시점의 감소율은 신양1리와 2리의 인구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7) 2009년 시점의 성비는 대서리가 168.2, 영흥리가 128.3, 묵리가 104.1, 신양1리가 114.6, 신양2리가 130.9로 파악되며, 예초리는 76.7로 여전히 여성인구가 높게 나타난다.

28) 추자도로 유입되는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의 통계수치는 현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 내로 유입되는 인도네시아인의 통계는 추자도가 속해있던 과거 북제주군이나 최근 제주시로의 증가가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해당연도의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은 2004년 총 97명(남자) 중 58명(60.0%)이 북제주군으로 유입되었으며, 2007년에는 252명 중 224(88.9%)명이, 또 2009년에는 376명 중 293명(77.9%)이 제주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29) 간단하게 1980년 시점의 3개 계급별 연령층(0~4세, 5~9세, 10~14세)의 인구비율 41.3%를 100%로 설정할 때, 15년 후 이들 계급별 연령층이 그대로 성장했다고 가정하는 1995년 시점의 3개 계급별 연령층(15~19세, 20~24세, 25~29세)의 인구 비율인 17.4%는 간단한 식에 의해 42.1%라는 결과가 나온다.

<표 4> 추자면의 연령별(5세 계급) 인구수의 시기별 변화

연 도 연 령	1980년(명)			1995년(명)			2009년(명)		
	남 자	여 자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0~4세	383	368	751	91	79	170	41	38	79
5~9세	510	433	943	82	84	166	30	52	82
10~14세	462	446	908	150	141	291	58	45	103
15~19세	325	251	576	58	39	97	58	48	106
20~24세	347	210	557	141	69	210	96	50	146
25~29세	216	190	406	133	81	214	104	79	183
30~34세	207	146	353	127	99	226	113	71	184
35~39세	147	170	317	134	114	248	153	60	213
40~44세	180	177	357	106	96	202	130	66	196
45~49세	139	147	286	128	87	215	116	70	186
50~54세	120	150	270	83	96	179	112	87	199
55~59세	94	119	213	112	120	232	87	81	168
60~64세	44	76	120	78	107	185	94	82	176
65~69세	29	53	82	51	91	142	62	94	156
70~74세	29	53	82	35	68	103	61	101	162
75~79세	7	28	35	18	37	55	35	69	104
80세 이상	8	37	45	3	48	51	24	82	106
합 계	3,247	3,054	6,301	1,530	1,456	2,986	1,374	1,175	2,549

(주 : 1980년과 1995년 통계치는 해당연도에 실시한 『인구 주택 총조사』 또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므로, 시군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와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결과와는 다소 오차가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아울러 2009년 통계에는 외국인 238명이 제외돼 있음.)

(자료 : ①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2,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제주도편), 37쪽.

② 통계청 홈페이지(인구주택총조사 결과(제주도 추자도 편)).

③ 제주특별자치도, 2009, 『2009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39-66쪽.)

<표 5> 시기별 주요 경제활동인구와 비율

구 분	1980년(명, %)		1995년(명, %)		2009년(명, %)	
	인구수	비 율	인구수	비 율	인구수	비 율
15세 미만 인구수	2,602	41.3	627	21.0	264	10.4
15~64세 인구수	3,455	54.8	2,008	67.2	1,757	68.9
65세 이상 인구수	244	3.9	351	11.8	528	20.7
합 계	6,301	100.0	2,986	100.0	2,549	100.0

(자료 : <표 4>에 의해 필자 작성)

급별 연령층 인구구성 비율은 41.3%였는데 이들이 15년 후에 성장한 계급별 연령층(15~29세)의 인구구성 비율은 17.4%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층이 성장하면서 추자도 밖

의 도시지역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구직 등을 위해 떠났음을 시사한다.

1980년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까지는 3,455명 54.8%를 차지한다(표 5). 이들 경제활동인구의 5세 계급별 연령층에서는 15~19세가 576명(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20~24세가 557명(8.8%), 25~29세가 406명(6.4%), 40~44세가 357명(5.7%), 30~34세가 353명(5.6%)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계급별 연령층은 추자도의 어업기반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시점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3.9%로 아주 낮게 나타난다.

1995년에는 10~14세 연령층이 291명 9.7%로 가장 높고, 이어서 35~39세가 248명 8.3%로 2위, 55~59세가 232명 7.8%로 3위, 30~34세가 226명 7.6%로 4위, 45~50세가 215명 7.2%로, 상위 5개 계급별 연령층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10~14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4개 계급별 연령층이 모두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1995년의 경제활동인구는 67.2%로 1980년과 비교해 볼 때 12.4%나 높아졌다. 말하자면 추자도 어업생산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비율은 11.8%로, 1980년과 비교하면 7.9%나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도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시점에서는 35~39세가 213명 8.6%로 1위, 50~54세가 199명 7.8%로 2위, 40~44세가 196명 7.7%로 3위, 45~49세가 186명 7.3%로 4위 그리고 30~34세가 184명 7.2%로 5위 등 상위 5개 계급별 연령층이 모두 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난다. 따라서 2009년 시점에서는 생산활동 연령층이 한층 더 확대됨으로써 어업활동 종사자들이 구성비는 최고조에 이른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995년 67.2%에서 2009년 68.9%로 한층 더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추자도의 전체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어업노동자의 부족을 가져오는 국면을 맞았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도 1995년 11.8%에서 2009년 20.7%로 크게 높아져 추자도는 이른바 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추자도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어업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층이 점차 감소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1980년과 2009년 수치를 비교해 볼 때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전체인구의 감소나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어업노동자들의 감소를 불러오는 한편, 노년층의 사회복지나 기초생활권 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해당 행정기관과 추자도민들에게는 중층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4. 맺음말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추자도는 제주도 본토가 관광에 올인 하는 지역처럼, 오로지 관광을 위한 섬 지역은 아니다. 이 표현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추자도가 다른 관광지역처럼 자원경관이 떨어진다고나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은 방문객들이 추자도의 청정수역을 그리워하며 낚시를

하고 싶어 하거나 오염에 찌들지 않은 추자도의 자연을 찾아서 방문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추자도가 관광의 섬이라 자타가 공인하기엔 현실적으로 높은 장벽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추자도가 지리적인 특성 중 하나인 위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섬(해중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추자도는 앞으로도 접근도(接近度)를 높이는 묘안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점은 추자도가 처해있는 분명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추자도를 전국적으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추자도를 방문 혹은 탐방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자도의 자연·역사·문화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추자도를 알릴 수 있는 단행본을 만드는 과정은 바로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추자도의 방문을 앞둔 사람들은 추자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며,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지적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적절한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어서, 지역 지리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한 추자도의 지리적 환경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추자도는 남해안에 위치하는 해중도, 즉 한반도의 남해안과 제주도 본토사이에 위치하는 청정수역을 지닌 해중도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거리적으로는 주변부의 육지와 멀리 떨어진 특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삼림과 산지사면 및 해안)이 잘 남아있고 주민들의 생활풍습도 주변부의 다른 섬지역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인 거리가 가져다주는 예상외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주민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어업활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점이다. 농경지로서 받은 주택이나 산기슭 주변에 분포하지만, 주민들은 주로 자가 소비용 채소류를 재배하는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연승어업(延繩), 자망(刺網) 및 유자망(流刺網)어업, 들망(걸그물)어업, 통발(문어단지)어업에 의존하여 고등어, 조기, 삼치, 옥돔, 갈치, 방어, 쥐치, 문어, 멸치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sup>30)</sup>.

셋째로, 추자도는 행정구역으로 볼 때 전라도와 제주도 사이를 오가며 편입되기를 반복하여 주민구성이나 언어 및 생활풍습 등에서 볼 때 전라도와 제주도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섬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 대부분이 선조(先祖) 대부분 영암, 밀양, 완도, 해남, 강진 등 전라도로부터 이주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어나 다양한 생활풍습 등에서 전라도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추자도가 1914년 이후 제주도에 재 편입되면서부터는 제주도 본토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오늘날 추자도는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된 결과 기간산업인 어업생산활동의 유지는 물론 섬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승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추자도의 인구를 1970년대 초와 비교해 보면 2.5배에 가까운 수치로 감소했으며, 그로 인해 섬 밖에서부터 많은 남성 어업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단위로 보면 묵리, 신양리(1리와 2리), 예초리 등 하추자도에 위치하는 마을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어업노동력은 남성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0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한국인보다도 중국(조선족)과 인도네시아로부터 많은 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유입은 도서지방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는 단

30) 정광중·강만익, 2003, 앞 논문, 63-79쪽.



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추자도는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